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1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(4535), 전동욱 사무관(5284)

『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』 현판식 개최

- 통상의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-

□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9.16(월) 무역협회에서 열린 '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' 현판식에 참석하여,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음.

○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무역협회장과 오영호 kotra 사장을 비롯하여,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,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, 박찬호 전경련 전무 등 경제4단체가 모두 참석하여,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표명하였음.

* 일시/장소: 9.16(월) 10:30 ~ 10:50, 트레이드타워 46층

○ 또한, 이날 행사에서는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과 웹사이트* 시연이 이루어졌고,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·오프라인으로 해외의 비관세조치 사례들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되었음.

* 비관세장벽 포털(www.tradenavi.or.kr)
* 추후 fta1380 포털(www.fta1380.or.kr, 10.8일 서비스 개시 예정)으로 접속 가능

1. 우편 접수 : 서울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46층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
2. 전화 접수 : 02-6000-8383
3. 팩스 접수 : 02-6000-3079
4. 이메일 접수 : ntbcenter@kita.net

□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, 그 결과 비관세조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,

* "보호주의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."(WTO, '12.6월)
* WTO/TBT 통보문 건수가 '12년에 사상최대(1,560건)를 기록

○ 우리 기업들은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의 애로로 느끼고 있어,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

* 우리나라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26.9%, 중국수출 중소기업의 16.7%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(중기중앙회, '13.6)

□ 우리 정부는 新통상 로드맵('13.6) 발표시, 통상의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발표*한 바가 있고,

* 신통상 로드맵('13.6월, 관계부처합동) "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 추진"

○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관합동의 대응체계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며,

○ 9월말에 정부차원의 '비관세장벽 종합 대응체계'를 수립·발표할 계획

□ 앞으로 사무국은 ① 외국의 비관세조치 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② 수집한 자료의 체계적 DB化·유관 기관간 공유하며, ③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 건의하고, 비관세장벽 협의회*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임.

* (협의회 구성)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, 기업 및 업종별 협회, 전문가 자문단, KOTRA 등으로 구성(첫 회의는 10월 개최 예정)

○ 특히, 사무국은 kotra 및 경제4단체, 업종별 협회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전동욱 사무관(☎ 02-2110-52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